

高유가에도 관용차는 '대형'

광주·전남 지자체, 소형·하이브리드카 비율 전국 최하위권

지역민 고가 수입차 구입 크게 늘어

사상 최악의 고유가 속에서도 광주·전남지역 지자체들의 소형차 비율이 전국 지자체 중 최하위권에 머무르는 등 '고유가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들어 광주·전남 일부 지역민들의 수입차 구매도 급증 추세를 보이는 등 경제난에 허리를 졸라매는 서민생활과 거리가 먼 행태를 보이고 있다.
2일 행정안전부의 '2007년말 자치단체 관용차량 보유현황'에 따르면 광주시의 관용차(71대) 가운데 경차 및 소형차의 비중은 30%(22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

(38%)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서울을 포함한 전국 7개 대도시 가운데 대전시와 함께 경·소형차의 비중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광주시의 관용 대형차 비율은 15%(11대)로 전국 평균(9%)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도 관용차 66대 가운데 경·소형차의 비중이 12%(8대)에 불과해 광역자치단체 평균인 38%에 크게 못 미치는 물론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전남지역 22개 기초자치단체의 경·소형차 비율은 29%(107대)로 전국 평균(46%)에 크게 못 미쳤다. 반면 광주지역 5개 기초자치단

체의 경·소형차 비율은 53%로 간신히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을 웃돌았다.
더구나 이들 지자체는 에너지절감형 관용차 구매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시·도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광주시의 관용차 가운데 연료효율이 높은 하이브리드 차량은 3대에 불과했으며, 전남지역 22개 시·군도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을 외면하고 있다. 이는 최근 타 시·도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 하이브리드차 구매를 늘린 것과는 대조를 이룬 것으로 지역 지자체의 '고유가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올해 물가등급과 경기침체 속

에서도 광주·전남지역의 고가의 수입차 판매량은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들어 5월까지 광주·전남에서 판매된 수입차는 총 39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277대)에 비해 43.3%(120대)나 늘었다.
전남지역도 올해 5월까지 172대의 수입차가 판매돼 지난해 같은 기간(109대)보다 57.8%(63대)나 늘었다.
업계에서는 "광주·전남의 경우 수입 경유차 판매가 다소 늘긴 했으나 같은 기간 고가의 휘발유차 판매도 급증했다는 점에서 고소득층의 고가품 선호 추세가 뚜렷한 것 같다"고 분석하고 있다.
/재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여성 화합 한마당 축제

제 13회 여성주간(1~7일)을 맞아 2일 광주시 서구 염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광주 여성 화합 한마당 축제'에서 웰빙댄스 참가 여성들이 장내를 순회하며 음악에 맞춰 율동을 하고 있다. 광주시가 주최한 이 행사에는 여성단체 회원과 시민 1천200명이 참가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社告

'光日春秋' 필진 바꿉니다

전국 대표 지방정론지들의 모임인 '춘추사'가 국내 정상급 필진들을 초대, 공동 게재하는 목요일컬럼 '광일춘추'의 필진을 새롭게 바꿉니다. 광주일보를 비롯해 부산일보, 매일신문, 대전일보, 경남신문, 강원일보, 경인일보, 전북일보, 제주일보 등 지역 대표신문 9개사는 각계 권위 인사들로 새롭게 필진을 구성, 한국 사회의 이슈들을 날카롭게 파헤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 바랍니다.



정목일씨 박범신씨 장인순씨 김용택씨

◇ 정목일(수필가)

▲1945년생 ▲'월간문학', '현대문학' 등단 ▲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장 ▲한국문학상 수상 ▲창신대 문예창작과 겸임교수 ▲계간 선수필 발행인 ▲수필집 '마음 고요', '모래 밟아 쓴 수필' 등

◇ 박범신(소설가)

▲1946년생 ▲민족문화작가회의 자문위원 ▲서울문화재단 이사장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 ▲한무숙문학상, 만해문학상 수상 ▲명지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소설 '불의 나라', '물의 나라' 등

◇ 장인순(한국원자력국제협력재단 이사장)

▲1940년생 ▲한국원자력연구원 고문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장 ▲고려대 대학원 석사 ▲캐나다 웨스턴타리오대 대학원 화학박사 ▲2005 닥고 싶고 되고 싶은 과학기술인 수상

◇ 김용택(시인)

▲1948년생 ▲제24대 전북작가회 회장 ▲2002전북환경운동 공동의장 ▲제11회 소총사선문화상 ▲1986년 김수영문학상 수상 ▲임실덕치초교 교사 ▲시집 '섬진강', '맑은 날' 등

光州日報社

올 성장 목표 6% → 4.7%

정부, 청년 채용 땀 임금 절반 지원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을 전망치를 6% 내외에서 4%대 후반으로 내리고 취업자 증가 예상수도 35만명 내외에서 20만명 내외로 수정했다. 정부는 또 하반기에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살리기, 인플레이션에 주력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2일 발표한 올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이같이 올 거시경제지표를 대폭 하향 조정하는 한편 서민이 피부에 와닿는 경제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기획재정부 임종룡 경제정책국장은 이날 "원유·곡물·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올해 성장률, 물가, 경상수지 등 거시경제지표를 재조정했다"며 "내수 부진이 심화해 올해 성장률은 지난해의 5.0%보다 낮은 4.7%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애초 예상보다 상승세가 확대돼 4.5% 내외까지 올라갈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지난해(2.5%)보다는 2%포인트 내외 상승했고 3월 목표치보다는 1.2%포인트 내외 올라갔다.

연간 취업자 증가 수는 고유가와 내수부진 등 경기 요인과 비정규직 감소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으로 20만명 내외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3월의 목표치보다 15만명 내외가 줄었고 지난해(28만2천명)보다는 8만2천명 정도 감소했다.
이처럼 경제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인턴제를 신설, 중소기업이 청년 인턴을 고용할 때마다 임금의 절반을 지원하고 인턴 종료 후 정식직원으로 채용하면 시 6개월간 같은 금액을 추가지원하는 등 최장 1년간 임금 절반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저소득층에게 주택임대료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주택바우처 제도도 도입, 올 하반기 중 시범사업 모형을 개발하고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연간 취업자 증가 수는 고유가와 내수부진 등 경기 요인과 비정규직 감소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으로 20만명 내외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3월의 목표치보다 15만명 내외가 줄었고 지난해(28만2천명)보다는 8만2천명 정도 감소했다.
이처럼 경제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인턴제를 신설, 중소기업이 청년 인턴을 고용할 때마다 임금의 절반을 지원하고 인턴 종료 후 정식직원으로 채용하면 시 6개월간 같은 금액을 추가지원하는 등 최장 1년간 임금 절반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저소득층에게 주택임대료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주택바우처 제도도 도입, 올 하반기 중 시범사업 모형을 개발하고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민노총 파업 강행

광주·전남 10개 노조 1만 1천명

기아자동차와 금호타이어 광주공공 등 금속노조 산하 광주·전남지역 주요 사업장들이 2일 부분 파업에 들어간 데 이어 공공·보건·의료노조도 파업에 참여 것으로 보여 지역경제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부는 이날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노동청 앞에서 조합원 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민 건강권 사수를 위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갖은 뒤 금남로 시청앞에 집결했다.
이번 총파업에는 광주·전남지역 10개 주요 사업장, 1만1천여명의 노조원이 부분 파업 형태로 동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금속노조는 조만간 구체적인 파업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기아자동차 광주공공과 금호타이어는 2일 각각 주·야 2시간, 3개조 별 4시간씩 파업했다. 파업에 따른 손실

은 기아차 전체 생산손실대수 900대(기아차 광주공장 310대), 손실액수 120억원(약 44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금호타이어 노조도 이날 3개조 별로 4시간씩 모두 12시간 부분파업했다. 이에 따라 하루 평균 타이어생산량 5만반 가운데 3만반, 금액으로 30억여원의 생산차질이 발생했다. 200여명에 달하는 협력업체 손실까지 합치면 그 액수는 4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어 9~10일께 철도 등 공공노조가, 23일께 보건·의료노조 등도 순차적으로 파업에 동참할 방침이며, 파업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남대병원 등 14개 병원 노조원 3천500여명은 오는 23일 하루 동안 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동양의 향연이! HAINAN

무안++하이난(삼아)직항
매주 수,토 4회 한일 ₩899,000~
8/22, 8/26, 8/29, 8/31 편, 4회 한일

무안++장사(장가게)직항
매주 일,토 7회 한일 ₩649,000~
7/27, 7/31, 8/3, 8/7, 8/10, 8/14, 8/17 편

4명부터 출발가액 ₩999,000~

4명부터 출발가액 ₩899,000~

최장 해외의 무용모형

장가게

문의: 전남 - 박 동영(062)226-11070